‘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원력 결집

조계종, 5월 2일 기원법회 봉행
천일기도 3주년 맞아 성과 공유
1000여 명 동참 ‘불교 중흥’ 발원
진우 스님 “세계 불교 성지 장엄”
허민 청장 “보존 방안 다각 강구”
석불두 등 남산 성보 5곳 참배도

경주 남산=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은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상징적 불사로 추진되고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가 천일기도 3주년을 맞아 흩어졌던 신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미래 천년을 향한 서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거듭났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열암곡 일대 성역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2023년 4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입재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불사의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

법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헌향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헌등과 헌화,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의 축원으로 이어지며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간절한 서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의 경과보고를 통해 그간의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 사업 과정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5월 지진으로 인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19년 백만원력 결집 불사를 거쳐, 2022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을 계기로 입불 불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를 비롯해 선명상 대중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지역불교 활성화를 아우르는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종단 핵심 과제로 선언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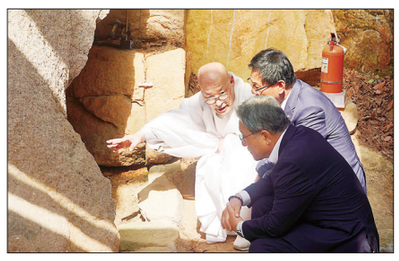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총무원 내 전담기구인 ‘미래본부’가 신설됐고, 2023년 4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천일기도는 매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동참하는 다라니 기도로 이어지며 전국적 신행 확산을 이끌었다. 그 결과 초기 연인원 300여 명에 불과했던 참배 인원은 현재 2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다.

미래본부는 학술대회, 문학공모전, 남산 성보지도 제작 등 다양한 문화·학술 사업을 통해 마애부처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업 추진 2주년을 맞아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현장에서 108배 기도를 봉행하고 남산 순례길 개발에 착수하는 등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성지 모델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진우 스님 “시대정신 바로 세우는 일”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를 통해 경주 남산을 정토 구현의 상징으로 가꿔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는 석불의 형상을 일으켜 세우는 토목의 역사가 아니라 분별과 집착으로 무너진 불교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부처님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곧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운 융창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 남산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비유하며 일대 성역화 불사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을 세우는 과업을 넘어 경주 남산을 전 인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장엄해 나가야 한다”며 “조계종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암곡 일대 성역화를 추진해 마애부처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살펴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허민 문화유산청장.

께서 전 세계인을 자비로운 미소로 맞이하는 평화의 안식처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계의 원력에 국가유산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더해 남산의 문화유산이 제 가치를 되찾고, 후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 힘쓴 불국사 총무 정수 스님, 열암곡 기도법사 선우 스님과 귀종 스님, 최장미 국가유산청 학예연구관,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김미향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문화자원과장, 서찬 동국대 경주병원 사무국장에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부대중 정성 모일 때 완성”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은 “열암곡에 엎드려 계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자 민족 정신 가치를 회복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핵심 사명”이라며 “부처님께서 온전히 제자리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심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한 만큼, 국회에서도 이런 뜻을 깊이 새겨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도 “이 시대 불자와 국민이 마음을 합쳐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와 우리 불교와 불자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부대중은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불교 중흥과 국운융창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법회를 마친 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주차장에서 열암곡 현장으로 이동해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친견했다. 마애부처님께 꽃을 공양한 진우 스님은 “지금 K-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불교 문화가 뒷받침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마애부처님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의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불제자의 자세도 아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스님은 “마애부처님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참배 공간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불 여부, 긴밀히 협의해 방안 연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마애부처님 입불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추가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마애부처님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바로 세울 것인지, 또는 현장 보존하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 조계종과 긴밀히 협의해 여러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동국대 WISE캠퍼스 스님들의 인솔 아래 지역 포교사와 시민들은 불곡마애여래좌상, 입곡 석불두,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윤을곡 마애삼존불 등 남산 일대 주요 성보 5곳을 차례로 참배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 봉축 분위기로 들떠 오르다

라다크서 진신사리 공개
달라이라마 봉축 메시지 발표

올해 ‘국제 베삭 데이’였던 5월 1일을 맞아 인도 라다크 지역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공개되며 환희로운 봉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라다크 인도 연방직할지 행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라다크의 봉축분위기를 전했다.

4월 29일 오전, 인도 공군의 특별항공편으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뉴델리에서 라다크의 주도인 레로 이운됐다. 이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후 건립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와 불탑에서 출토된 것이다. 사리를 마중하기 위해 비나이 쿠마르 삭세나 라다크 부지사를 대표로 라다크 불교협회(LBA), 라다크 사암 협회(LGA)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삭세나 부지사는 라다크 주민들을 대표해 전통 예물인 카닥(비단 스카프)을 올리고 예를 표했다. 부지사는 “해외가 아닌 인도 국내에서 이 사리가 원래의 보관 장소를 벗어나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SNS를 통해 “이 성스러운 사리는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의 상징이다. 이 사리가 레에서 공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라다크 경찰 의장대 사열과 스님들의 특별예불이 봉행된 후, 사리는 시와첼 공원으로 이운됐다. 이운되는 동안 라다크 전역에서 온 불자들이 공항에서 공원까지 꽃과 향을 들고 사리를 마중했으며 길가에서 연주하는 등 공양을 올렸다.

5월 1일 오전 시와첼 공원에서 봉행된 봉축 행사에 참여한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피프라와 사리는 지난 1950년 인도의 국회의원이자 라다크의 존경받는 고승이었던 바쿨라 린뽀체의 요청으로 잠시 레에서 공개된 적 있었으나 당시엔 열악한 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75년 만인 오늘, 라다크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사리를 친견하는 가피를 받는다”며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다.

진신사리는 10일까지 시와첼 공원에서 친견이 이루어지며 이후 잔스카르와 레의 다르마 센터를 거쳐 5월 15일 델리 박물관으로 다시 이운될 예정이다.


라다크에서 공개 중인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
사진 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5월 1일, 봉축 메시지를 통해 “2500년 전 부처님이 세상에 밝힌 등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연기법에 대한 깊은 통찰과 “남을 해치지 말고 모든 중생을 도우라”는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실천적인 지침이 됨을 역설했다. 이어 “스스로를 불제자라 생각하는 이들은 21세기형 불자가 되어야 한다”며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9월01일 출발~05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9월3일 출발~9월7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일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9월02일 출발~0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